

심장혈관 광간섭단층촬영을 이용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성공적 치료 1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¹,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순환기내과²이용규¹, 오석^{1,2}, 홍영준^{1,2}, 안영근^{1,2}, 정명호^{1,2}

배경: 급성심근경색증은 신속한 중재술이 요구 되는 내과적 응급 질환이다. 관상동맥조영술은 2차원 영상으로 협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광간섭단층촬영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은 3차원으로 더 높은 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하므로 최적의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응급실에 내원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경색관련혈관을 광간섭단층촬영을 이용하여 스텐트 삽입술로 치료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고혈압과 당뇨병을 가진 72세 남자 환자가 내원 3시간 전부터 지속되는 앞가슴 통증을 주된 호소로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였다. 흉부 X선 검사 및 12유도 심전도 검사상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혈액 검사상 혈청 트로포닌 T가 0.086 ng/mL로 상승 소견이 있어 비-ST분절상승 심근경색증을 추정 진단으로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다.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우관상동맥 원위부의 중등도 협착과 더불어 좌전하행지관상동맥 중간부의 중등도 협착이 관찰되었다. 심장혈관 광간섭단층촬영을 시행하였고, 우관상동맥 원위부의 협착성 병변에서 경화반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여 경색관련혈관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병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며, 시술 종료 후 환자의 앞가슴 통증이 호전 되었다. 이후 환자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성공적으로 퇴원하였다.

고찰: 급성심근경색증에서 경색관련혈관을 확인하는데 있어 심장혈관 광간섭단층촬영을 포함한 관상동맥내영상 검사가 유용할 수 있다.

